

# 제주도내 붓순나무 자생지 및 엽형변이

송관필, 문명옥, 현화자, 송국만, 부윤배, 강창훈, 강영제<sup>1</sup>, 김문홍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과, <sup>1</sup>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상기술연구소

##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Naturally Inhabited Areas of Native and Variation of Leaf Form of *Illicium anisatum* L. on Jeju Island

Gwan Pil Song, Myung Ok Moon, Hwa-Ja Hyun, Kuk-Man Song,  
Yoon-Bea Boo, Chang Hun Kang, Young Je Kang<sup>1</sup> and Moon-Hong Kim

Department of Life Science,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1</sup>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Forest Practice Research Center

자생식물을 이용한 산업화는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으로서 자생식물을 이용한 건강음료나 천연물추출 등에서 뚜렷하다. 그러나 화해자원으로서의 이용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약 14.3%종도이다(이, 1998). 이중 절화, 절지 및 절엽에 사용되는 종으로는 아스파라거스, 편백, 사스레피나무 등이 90%이상 사용되고 있다(박 등, 2002). 그러나 자생식물은 사스레피나무 1종 뿐으로 자생식물의 비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절지 및 절엽자원의 발굴을 위해 제주도내 자생하는 붓순나무를 대상으로 자생지 및 엽형 변이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붓순나무는 제주도 동쪽지역에 있는 채오름, 까끄레기오름 주변의 하천(천미천의 상류), 서검은오름에 자생하고 있었다. 자생지역의 평균 해발 350m 부근이었으며, 상층에 분포하는 수종으로는 주로 예덕나무, 생달나무, 팽나무, 때죽나무, 참식나무, 구실갓밤나무 등이 자라고 있었다. 하층에는 자금우, 마삭줄, 소엽맥문동, 왜송마, 홍지네고사리 등이 함께 출현하였다. 붓순나무는 자생하는 군락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채오름은 왜송마, 홍지네고사리가 출현하였고, 까끄레기오름 주변의 하천과 서검은오름에서는 때죽나무-팽나무군락으로 구분되었다.

입지환경의 변화가 붓순나무의 잎의 형태변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서검은오름 지역의 개체들이 엽신의 길이 7.72±0.99cm, 엽병의 길이 3.18±0.46cm, 엽폭 1.35±0.25cm 등으로 가장 컸다. 그리고 개체별 특성을 보면 엽신의 길이와 엽병의 길이는 까끄레기오름 주변 하천의 개체들이 변이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엽폭의 길이는 3곳 모두 비슷한 변화를 보였다.